

1.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나의 가치를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나 내 욕심을 더 따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먼저 품고 섬기며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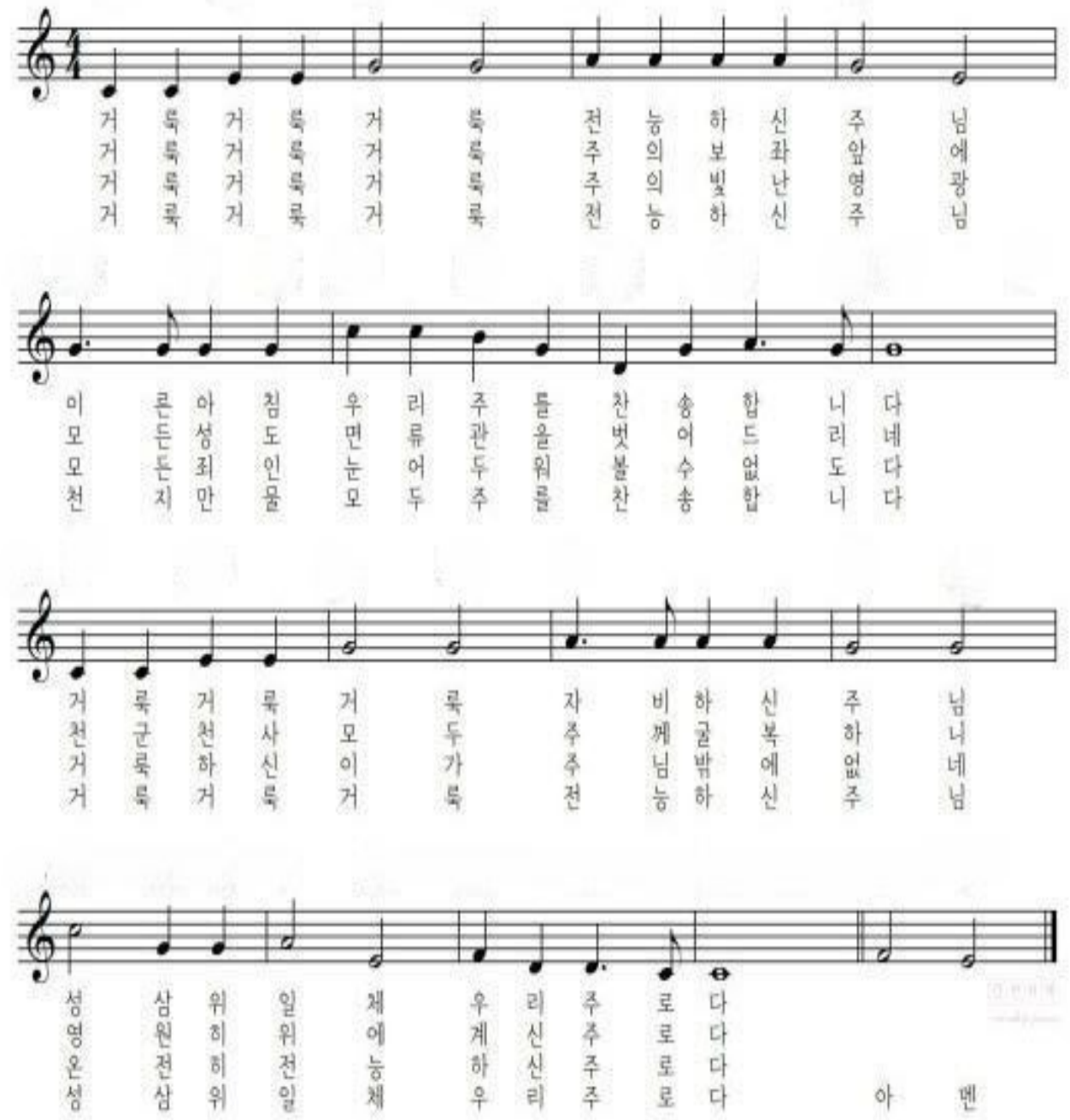
1. 말씀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치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치르신 생명의 값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죄와 세상의 욕심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닦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마음을 바로 세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삶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풀의 꽃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을 붙들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생각과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작은 말씀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섬김과 배려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가까운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삶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8장)



도입 |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인 품격

한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영적인 기품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말과 행동이 앞섰으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발의 노사도가 된 그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말씀 따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론 1 | 거룩은 보배로운 피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은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들어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가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내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거룩의 삶은 시작됩니다.

본론 2 | 거룩은 말씀의 순종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그 거룩이 시작한다면, 그 진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재물과 권력은 풀의 꽃처럼 시들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풀의 꽃처럼 시들어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오늘도 따라가는 순종의 삶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본론 3 | 거룩은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시작된 이 거룩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갈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열매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감격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에 감격하며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는 사랑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결론 |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어지며,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보혈로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세상속으로 나가 사랑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